현불논단

챗GPT 열풍, '성찰'을 생각하다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공지능, 로봇 등 일상에 파고들어
지적영역 대체…로봇 저널리즘 확산
오픈AI 출시한 '챗지피티' 최근 열풍
이세돌 꺾은 알파고보다 파급력 높아

몇몇 오류 발견되지만 AI 발전 가속
기술에 압도되어 지배당하게 될 수도
AI시대, 인간의 자기성찰 더 요구돼

2000년대 중반에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한 일본 노교수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에는 없었던 두 가지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먼저 그들이 거주하는 5성 호텔급 실버타운의 규모와 초호화 시설에 압도당했다. 나를 더 놀라게 했던 다른 한 가지는 노부부의 거실에서 만난 로봇 애견이었다. 자식이 없는 70대 노부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로봇 강아지가 주인의 지시에 따라 꼬리를 흔들거나 걸어 다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시연해보였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청결해서 좋다며 행복해하던 노부부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먼 미래의 세상을 체험하고 돌아온 것 같은 신기한 영상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로봇은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다. 로봇은 작업장에서 힘든 일을 척척 수행하며 노동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레스토랑에서 주문 메뉴를 테이블로 가져 온다. 로봇은 인간의 지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언론계에서는 로봇이 기사를 생산하는 소위 로봇 저널리즘이 쟁점이 된지 오래이며, 세계 유력 언론사들은 증권시황, 스포츠결과, 기업실적, 날씨 보도 등을 자동화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이런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동소유주로 있는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챗지피티(ChatGPT)가 인공지능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서 압도적인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챗지피티는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하여 이세돌 9단을 꺾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공지능 알파고를 능가하는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언어 처리 기술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는 학술논문 및 전문영역의 보고서, 연설문, 대학생의 리포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출시 1개월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실적을 기록했다.

특정 분야에서 챗지피티가 인간이 범접하기 힘든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오류도 속출하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가 내린 질병 진단에 오류가 발생했고, 진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챗지피티는 인용한 논문을 제시했으나, 그 논문이 가짜논문인 것으로 판명됐다. 챗지피티는 오로지 입력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과를 생성해내는 기술로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거나 가치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챗지티피의 등장은 인류사에 획을 긋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일 챗지피티를 장착한 검색엔진 빙(Bing)을 출시하였고, 구글은 8일 파리에서 생성형 AI를 결합한 검색서비스 바드(Bard)를 공개하는 등 빅테크기업들의 시장선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개발 경쟁이 뜨겁다. 기업의 매출 지향적 기술 개발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글 수석 전도사인 빈트 서프는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정부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규제가 AI의 발전을 조금 늦출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좋은 일이다"라고 밝혀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진일보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이언스픽션 영화 속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 의해 이뤄졌지만 인간이 기술에 압도당하고 지배당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비현실적인 주장만은 아니다. 혁신기술과 인간윤리가 균형있게 공존하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성찰만큼은 인공지능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인간의 주체성을 지켜내고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자기성찰이 더 요구되고 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몫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는 날 정적을 깨고 뉴스가 들려왔다. 오등동사지 발굴 보고 기자회견 소식이었다. 함께 하는 벗들 탐라유사팀과 현장으로 가보았다. 돌담을 따라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죽성길을 헤집고 갔다. 골프연습장과 개발 중인 공사물들이 가로놓인 길을 비집고 들어선 현장에도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곳 오등동사지는 예로부터 절왓, 또는 불탄터라고 구전되던 곳이다. 절에서 사용하던 샘물이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절새미에서는 여전히 다량의 용천수가 흐르고 있었다. 20여 년 전 지표발굴 당시 과수원 일대에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중기 사이의 기와편과 청자 대접, 매병 기종과 백자 접시 저부편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절새미에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샘물 앞에는 '이곳은 4.3 당시 11연대 1대대 군인들이 천막을 설치하여 주둔했던 군 주둔소 옛터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 주둔소가 있었던 곳이다. 죽성에 살던 한 주민은 이미 잡혀간 사위를 빼내려고 황소를 이끌고 갖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군인의 밀고로 무참히 매 맞고 사위와 함께 1948년 11월 14일 총살되기도 했다. 4·3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표석을 세운다'는 기록물마저 눈에 파묻혀 있었다.

그렇게 역사의 사연들은 묻히고 또 묻혔다. 가슴에 묻어놓은 기억은 눈물 되어 절새미물로 언 눈밭에서 흐르고 있었다. 2020년 오등동 250번지 일대에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주거지 등이 발견돼 주변은 문화재 유존지역 일명 '오등동절터'로 등록돼 개발하려면 발굴조사를 반드시 밟아야 했다.

해당 부지는 토지주가 창고 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 지난해 여름 표본조사를 했다. 이에 정밀조사가 진행되어 총 5호 건물지가 드러났다. 그 가운데 3호 건물지에서 '금동다층소탑'이 발견됐다. 크기는 성인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정도로, 탑의 중간 몸체 부분인 탑신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번 유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장은 보고회에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고려시대 청동소탑은 30여 점에 불과한데,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신고되는 경우가 다수다.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출처가 밝혀진 사례는 5개 안팎에 불과하다. 제주에서 고려시대 청동소탑이 정식 발굴조사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국내 전체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려시대 건축 문화를 유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영철 원장은 "고려시대는 외침이 많아서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탑 모형을 보면 고려시대 목조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건축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높은 가치를 지녔기에, 국내 건축사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의 몫이다. 천년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에 파묻혀 있다가 기억하는 자에게로 그 사연을 전한다. 눈밭에 절새미물은 무언설로 설법하고 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說

진각 100년 새 비전을 기대한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2월 20일 서울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으로 울릉도 금강원 성지 조성사업인 회당명상체험관 건립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진각종은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에 제 3차 성역화 조성사업인 금강원 성역화 불사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완성할 예정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회당기념관 △회당생가 복원 △명상수련원 조성 등으로 울릉도 사동 일원 1만3600여 평(45,237㎡) 부지에 조성된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지난 1월 통리원장 직속 기구인 '성지조성위원회'와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하며 3월부터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대 기조인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은 '다시 종조정신'으로 돌아가 종단의 활력과 교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는 종단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교화 및 포교의 혁신적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참회' '화합' '혁신' 등을 잡았다.

이중 특히 참회는 종조님의 창종 정신이 깃든 사상이며, 혁신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친 종조님의 개혁정신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밀교종단인 진각종이 올해 울릉도 금강원 성지 조성사업인 회당명상체험관 건립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을 통해 회당대종사의 창종 정신을 되새기고 진각 100년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

상월 순례 공덕, 불교중흥 이어지길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자리,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대탑 앞에 한국 순례자 5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불제자로서 참회와 성찰, 새로운 불교 중흥을 다짐하는 108배를 부처님 전에 경건히 올렸다.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2월 22일 마하보디대탑 앞에서 개최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현장.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에서 순례단은 불제자의 각오를 담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 미래를 언급하며 대중 모두 새롭게 발심하길 당부했다. 포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자승 스님의 일성에 동참자들은 숭고한 결사 정신을 되새겼다.

무더위를 피해 새벽 3시에 하루를 시작, 하루 평균 30km를 걸어야 하며 공터에서 숙영을 해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43일간 1167km를 걷는 대장정인 인도 순례를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 체득하겠다는 서원 때문일 것이다.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 불교 중흥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지치고 고통스르워도 원력을 이루는 날까지 끊임없이 중생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이길을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걸었다.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인연들은 마음으로 함께했다. 상월결사의 그 길에 보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순례단의 공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가 일길, 세계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